

논문접수일 : 2011.12.24

심사일 : 2012.01.05

게재확정일 : 2012.01.21

## 조선후기 상주 백자의 문헌적 일고찰

A Philological Study of the White Porcelain Made in Sangju  
in the Late Joseon Period

김 종 태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

**Kim jong-tae**

Dept.of craft design, cheongju university

\* 본 논문은 2010. 3. 1 ~ 2012. 2. 28에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 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서론

## 2. 본론

### 2.1. 조선후기 상주 백자의 도자사적 의의

2.1.1. 백색의 사적 위상

2.1.2. 제기로서의 백자

2.1.3. 상주 서산의 백자

### 2.2. 조선후기 백자를 통한 유가의 수신

2.2.1. 유가의 수신 도구

2.2.2. 다구에 쓰인 백자

## 3.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본 논고에서는 조선후기 상주 백자에 대한 고문헌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상주지역은 조선전기 상품자기 절반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도자사적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음을 서론에서 문제제기 하였다. 필자가 상주지역을 집중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산의 백자가 얼마나 우수하고 진귀한 그릇인가를 사실대로 기록한 내용의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상주지역 백자의 위상과 도자사적 의의 및 조선후기 백자를 통한 유가의 수신을 고찰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론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백색의 사적 위상을 통하여 조선 후기 가장 왕성하게 사용된 백자에 예와 덕의 상징성이 담겨 있음을 고증하여 조선후기 백자 위상의 일면에 접근 하였다. 둘째, 제기로 쓰인 백자에서는 백자가 우리나라 중국 등에서 제기 및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 쓰였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어기의 배경과 상주 서산의 백자에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조선후기 백자가 어기의 진상품으로 올려 진 내용을 고찰하였고, 특히 진상된 백자에 상주 서산의 백자가 있었음을 밝혔다. 넷째, 백자를 통한 유가 수신 위상에서 조선후기 선비들이 수양하고 학문하는데 백자의 결백한 정신을 흠모한 점을 자료를 통하여 고증하였다. 다섯째, 백자 다기를 애호한 조선후기 다인의 의지가 예에 부합되게 실천한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이 조선후기 백자의 사적 위상을 고문헌의 자료를 통하여 그 가치의 범위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상주 서산 백자가 어기의 진상품이었음을 정약용의 『다산시문집』을 통하여 고찰함에 따라 상주 백자가 한국의 도자사적 위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주제어

백자, 상주, 조선후기

## Abstract

In this study, I attempt to consider of a philological study of the White Porcelain made in Sangju in the late Chosun Period. Although the Porcelain goods had made in Sangju in the early Chosun Period, but in this area, the porcelaneous study was very slight actual circumstances so I submitted to a problem in the introduction. The writer, I am researching and concentrating on Sangju area, in the course, the White Porcelain made in Seosan is how excellent and valuable porcelain which is , in fact, records which are philological data of contents through them I present that it will be considered of moral training of a Confucianist by porcelaneous meaning and phase of White Porcelain made in Sangju and the White Porcelain in the late Chosun Period.

On this, in the main subject, I develop to discuss as follows: the first, through the private phase of White Porcelain which was the most prosperously us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which had the symbol of courtesy and virtue. Those were studied by me. And I approached an aspect of phase of White Porcelain in the late Chosun Period. The Second, in the White Porcelain used in religious services utensils, I examined the use of a noble guest treatment and a religious services utensils in China and our country. The third, through the various data of White Porcelain made in Sangju Seosan and the background of King's utensils I considered the contents submitted as a presenting to the king the local products of king's utensils and especially the presenting to the king the local products of White Porcelain made in Sangju Seosan. The fourth, I studied historical evidence through the data which was an aspect of pure admiration spirit of White Porcelain in the late

Chosun Dynasty scholars cultivated their mind and studied in the Confucianists' moral culture phase through White Porcelain. The fifth, I clearly studied the appearance of meaning practiced with courtesy to comply by the late Chosun Period tea-person's will who preferred the White Porcelain tea-ware.

Ut supra, I can be confirmed the scope of value through the data of old literature about the private phase of the late Chosun Period White Porcelain and confirmed that the White Porcelain made in Sangju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Korean Porcelaneous historical phase according to consideration through Jeong, Yakyong's *Dasan Collected Poems* which was recorded the fact which was presenting to the king the local products of King's utensils of White Porcelain made in Sangju Seosan by the based on these consideration.

### Keyword

White Porcelain, Sangju, Late Chosun Period

## 1. 서론

상주지역은 조선전기 상품자기 절반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도자사적 연구(강경숙, 1986; 장동철, 2008; 전승창, 1996)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상주지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임금께 바친 진상품인 상주 서산 백자라고 추정되는 고문헌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산의 백자가 얼마나 우수하고 진귀한 그릇인가를 사실대로 기록한 내용의 문헌적 고찰과 조선후기 백자를 통한 유가의 수신을 밝히고, 상주백자의 무늬한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조선후기 상주 백자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지역은 조선전기의 발달한 도자기술이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면서 많은 수의 요지가 형성되었다. 조선전기에 관요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요지로는 화현리, 대전리 요지가 있다(김종태, 2004; 김종태, 2006; 김종태, 2008). 조선시대 중·후기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많은 수의 요지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임진왜란 이후 지방에서 발달한 장시가 형성되면서 자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와 결부되

어 많은 요지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주지역에서 소비되는 백자는 상주지역에서 상당부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본다(김종태, 2004).

임진왜란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러 백자생산의 양상은 중앙 관요와 지방요가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조선관요에서는 청화안료의 구입이 어려워지자 철화백자로 전환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 철화백자가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관요의 경우 17세기 후반에 다시 청화백자의 제작이 이루어지나 지방에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철화자기를 제작한다. 상주지역도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전개된다. 이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긴밀한 교류가운데서 백자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당시의 도자생산은 전국적인 상호관련 아래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상주는 경상도의 도자생산에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였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선후기 상주지역 백자의 도자사적 의의를 밝히기 위해 사료와 고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첫째 백색의 사적위상, 둘째 제기로서의 백자, 셋째 어기의 배경과 상주 서산의 백자를 살펴보고, 본론 2장에서는 조선후기의 백자를 통한 유가의 수양과 다구에 쓰인 백자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1 백색의 사적 위상

인간의 생활용품 중에 그릇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도 없을 것이다. 물리적 도구의 그릇도 그러하지만 우리 선현들은 추상적인 의미로 그릇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많은 교훈을 남겼다. 공자는 “군자는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다.”(『논어』 「위정」 “자왈 군자 불기”) 라고 하였다. 즉 그릇을 덕을 완성한 선비의 모습에 비유하여 덕스러운 군자는 모든 예를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의 재주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불기’하다 라고 말하며 ‘기’를 들어 설명하였으니 도자사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조선 후기 백자가 발달한 배경으로 백색을 숭모한 근거를 보면, 『맹자』 「공손추장」 중국 고대 순임금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있다.

“발갈고 질그릇 굽고 고기 잡을 시절부터 황제에 오르기까지 남에게서 본받지 않은 것이 없으셨다. 임금이 미천할 때에 歷山에서 농사를 지었고, 河濱에서 질그릇을 굽고 雷澤에서 고기를 잡았었다.” (『孟子』 「公孫丑章」)

이 내용은 요임금으로부터 천하를 선위 받은 순임금이 천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한 일은 농사지으며 질그릇 굽는 사람이었으니 질그릇을 구우면서 천하의 민심이 한 몸이 저절로 돌아오게 수신을 했다. 또 은나라의 현인 기자가 있었다.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맨 먼저箕子의 德化를 입어 예의의 나라가 된 것이다. 기자는殷 나라 사람이다. 은나라는 흰 빛을 숭상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흰 옷을 입는 것은 그 유래가 있는 것이다.”(李漢, 『星湖僿說』)

라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예의의 나라가 된 것은 은나라의 현인 기자의 덕화에 의한 것이라고 이익은 논하였다. 기자는 은나라 사람이고 은나라에서 백색을 숭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의 덕화를 입어 백색을 숭상하였다는 백의민족의 유래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다. 또 『성호사설』에

“周頌에, “白馬를 탄 손님이다.”고 한 것은 기자를 가리킨 것이니, 기자가 백마를 탔던 것과 부합이 된다. 우리나라 풍속이 흰 빛을 숭상하여, 천년이나 만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인데, 어찌 관만이殷나라의 유물이 아니겠는가?”(李漢, 『星湖僿說』)

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 백색을 숭상한 유래는 은나라 현인이었던 기자가 백색을 숭상하였기에 기자의 덕화를 숭상하고 존모함에 백색까지 숭상하였다는 이익의 설을 근거로 한다면 조선시대 발달한 백자의 백색은 예와 덕의 상징성이 백색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와 덕의 상징성이 담긴 백자가 조선시대 들어와 후기에 가장 왕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우리민족의 백색 숭상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백자가 제기로 사용된 점, 그리고 백자의 가치를 사료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 2.1.2 제기로서의 백자

유가의 경전 중에 예의 법칙을 다룬 『예기』에서 제기는 예에 있어 매우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도 제기는 매우 중요한 용품으로서 이익의 『성호사설』 「인사문·제기제복」을 살펴보면 제기는 백자로 사용하였다. 즉,

“옛날 대부는 祭器를 마련하기 전에 燕器를 만들지 않으며, 제기는 남에게 빌리지 않고 팔지도 않으며 연기와 혼동해서 쓰지도 않았다.

곡례』에 의하면, ‘田祿이 없는 자는 제기를 만들지 못한다.’ 하였고, 또 「禮運』에는 ‘제기를 빌려 쓰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다.’ 했는데, 그 注疏에, ‘대부는 田地가 없으면 제기를 만들 수 없고 비록 전지가 있어 제기를 만들더라도 구비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빌려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오직 公·孤 이상은 제기를 구비할 수 있으므로, 『周禮』에 ‘四命(公卿 이상을 이룸)은 제기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벼슬이 없는 선비는 제기를 구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周禮』에, ‘제기를 동쪽 벽장 속에 간직한다.’ 했으니, 이는 제기를 구비할 역량이 있는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표기』에, ‘군자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제기를 쓴다.’ 하였고, 그 주에, ‘존경하는 손님을 접대할 때 감히 燕器를 쓰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은 그 재력에 의하여 제기를 약간 만들어서, 존경하는 손님에게만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옛날 籩豆(대[竹]로 만든 제기와 나무로 만든 제기)는 모두 대와 나무로 만들어져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항상 쓰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흑 漆을 하면 약간 나은 편이나 그래도 깨끗하지는 못하다. 근세의 白磁器는 제사나 손님 접대에 쓰기가 적합하고 또 마련하기도 쉬우니, 이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李漢, 『星湖僿說』)

제기는 남에게 빌려서도 아무리 가난해도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는 귀중한 물건이다. 그렇게 귀한 제기를 덕이 높은 귀한 손님이 오면 평상시에 쓰던 그릇을 쓸 수가 없어 제기로 현인을 대접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 고유의 전통 사상 속에는 조상을 극진히 추모함과 현인을 높이는 의식이 극진하고 그러한 예를 표하는 것 중 하나가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올리는 일이었다. 옛날 제기는 대나무와 일반 나무로 만들었는데 항상 사용하는 물건으로 재질이 적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여 백자기를 제거나 손님 접대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강홍중(1577-1642)의 『동사록』 「문견총록」에 보면 우리나라 사신이 일본을 다녀와서 그릇에 대해 보고한 내용들이 있다.

“존귀한 손님을 향연할 때에는 모두 白木器와 生土器를 쓰는데 금은을 칠했으며, 젓가락도 또한 백목으로 만들어 한 번 쓰면 문득 버리고 다시 쓰지 않았다. 잔을 돌려가며 수작할 때에는 반드시 剪綵, 絲花, 金臺를 썼다. 음식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얇은 백목판으로 된 그릇에 담았다. 그 제도는 네모진 상자[方箱]와 같았는데, 雲足を 조각한 것은 白折箱이라 하고 만약 운족이 아니면 금은으로 칠하여 花折箱이라 하였다. 그 밖에도 존경하는 예절에는 모두 白盤을 사용하였다. 沙器와 土器의 유는 모나고 반듯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기울고 찌그러진 그릇을 얻으면 값없는 보배로 여겨, 비단보에 열 겹 싸서 다투어 자랑하였으니, 그 풍속의 괴이함이 이러하였다. 民俗은 검소하려 하면서도 실은 검소한 것을 알지 못하고, 文飾하려 하면서도 실은 문식을 알지 못하였다. 검소한 듯하나 검소하지 않고, 문체가 있는 듯하나 문체가 없었다.”(姜弘重, 『東槎錄』)

강홍중은 일본에서도 존귀한 손님을 대접할 적에 존경하는 예절에 백반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또 사기와 토기에서 모나고 반듯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기울고 찌그러진 그릇을 얻으면 값없는 보배로 여겨 비단보에 열 겹 싸서 다투어 자랑하는 일본의 풍속이 괴이하다고 하며 민속이 검소하지 않고 문체가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 안에서 일본에서도 귀한 손님을 대접할 적에 백반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백자는 제기로 쓰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쓰였다. 백자는 진상품으로 임금께 바치기도 하고 임금이 하사품으로 내리는 귀한 물건으로 쓰이기도 하고 외교사신을 통해 백자가 유통되었던 사실 등은 조선 전 기간을 통해 문헌사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주지역 요지에서는 17~18세기에 해당되는 제기는 수습되지 않았으나, 상주의 백자요지 45개소 중 신안 1요지①, 신안 4요지②, 백학 1요지에서만 19세기에 제작된 굵이 높은 백자제기가 수습되었다. 따라서 상주지역 출토 백자제기 접시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유교의식인 제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김중태, 2008).

### 2.1.3 상주 서산의 백자

예로부터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술이 아니면 제향을 올리지 못하고 군신 간에 술이 아니면 정 의가 두터워 지지 못 한다고 하였다(『명신보감』 「훈자편」). 술에는 또 예와 의를 행하는 주도가 있

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러한 자리에 술잔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전기 15세기의 기록들은 흥미해 볼만하다. 즉, 세조가 신숙주의 사은숙배에 어주를 하사한 기록이다.

“左議政 申叔舟 등이 謝恩하니 康寧殿에서 引見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傳旨하기를, “卿들이 어제 모두 醉하지 않았으니, 오늘은 모름지기 취하도록 하라.”하고, 兵曹判書 韓明澮에게 명하여 磁碗으로써 술을 돌리게 하였다. 명하여 특별히 洪逸童·曹敬智를 嘉善大夫로 승진시키고, 즉시 金帶를 띠고서 나가도록 하였다.”(世祖實錄)

라고 하였으니 임금과 신하의 정의를 돈독히 하는 자리에서 임금의 어주에 자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 22년(1491)의 다음 기록을 보면,

“白磁로 된 술잔을 정원에 하사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술잔은 정결하고 흠이 없어 술을 부으면 찌꺼기가 다 보인다. 사람에게 비교하면 大公至正하여 한 점의 사사로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좋지 않은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國朝寶鑑)

라고 하였으니 성종은 정원에 백자를 하사하며 이 술잔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술을 따르면 찌꺼기가 다 보인다고 하였다. 이 말 속에서 백자 흰색의 특성을 살려냈으니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공명정대한 사람이요 안과 밖이 똑같은 언행일치한 군자의 품성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 백자 술잔은 좋지 않은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하며 하나의 물건인 백자 술잔을 인격화 하여 비유를 하며 자못 모든 신하들이 백자 자완처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교시한 뜻을 엿 볼 수 있다. 백자는 단순한 기물이 아닌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백자가 갖는 또 하나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이익의 『성호사설』 「만물문」에 비색자기를 보면 18세기 전반기에 제작했으리라고 보는 백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점을 시사한다.

“『袖中錦』에, ‘고려의 秘色磁器는 천하에서 제일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기는 결백하게 만드는 데는 장점이 있어도 그림을 수놓아서 만드는 일에는 능란하지 못하다.’ 하였으니, 이는 곧 결백한 것을 지칭한 말이다. 지금 궁중에 바치는 司饗院의 자기가 지극히 아름다운바, 지난해 淸國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한량없이 칭찬하였다. 그러나 忠烈王 15년에 元나라 中書省에서 고려로 통첩을 보내 靑砂로 만든 독·동이·병 등을 구해 갔다 하니, 이는 혹 예전에만 만드는 이가 있었고 지금은 능히 만들 수 없는 것인지, 또는 일본과 무역함에 따라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중략)

지금 세상에는 이런 자기가 또한 많은데, 禽鳥·草木·山巖·虫獸 등 여러 물형의 그림을 놓아 만든 것이 푸르고 곱기가 모두 절기하다. 이는 곧 回回靑이라야 그릴 수 있는 것이고 딴 채색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인데, 王元美는 ‘혹 石靑으로도 그릴 수 있다.’ 하였다. 우리 집에도 옛날에는 이런 자기가 몇 개쯤 있었는데, 先人 외가에서 關內로부터 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께서 몹시 중하게 생각하였다.

병자년 난리 때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보호했기에 나도 오히려 보았다. 그러나 지금 사대부의 집에 보통 쓰는 그릇에 비교해도 오히려 품격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귀천을 막론하고 집집마다 이러한 자기를 쌓아 놓고 쓰는데, 거의 질그릇과 구별 없이 쓰니, 이로써 세상의 사치와 검소함을 점칠 수 있다.”(李漢, 『星湖僿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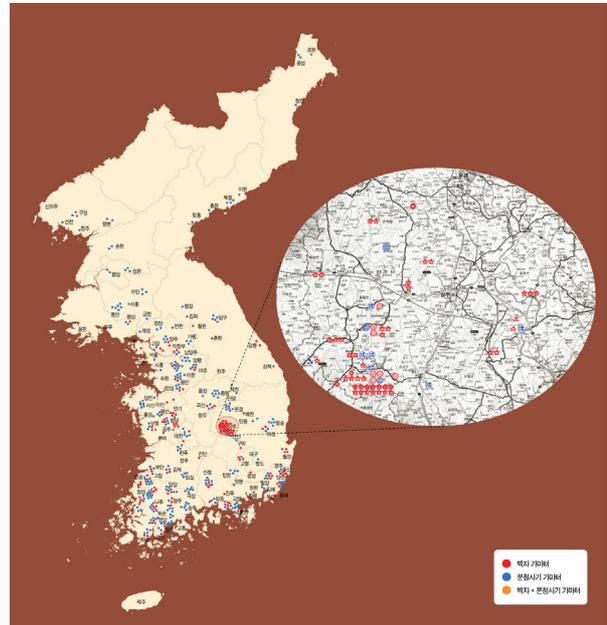
이는 이익이 할머니가 몹시 아끼시던 청화백자를 생각하며 쓴 글이다. 고려의 비색자기가 천하의 제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결백하게 만드는데 장점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고려 비색자기 못지않게 조선후기 백자의 우수성을 논하면서 백자가 결백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시 「선조기사」에는 서산이라는 곳에서 생산된 백자가 임금 수라상에 놓여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서산은 전국에 몇 곳이 있으나, 서산의 인근 무덤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수작이 많이 출토된다. 이러한 도자기의 부장을 시기별로 보면 10~11세기경에는 생산지와 떨어진 원거리에서 도자기를 공급받아 소비했으며, 12세기 후반이후부터는 분묘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이종민, 2007).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사료를 살펴보면, 촌 황오 정승의 후예인 녹차 황오(1816~?)가 쓴 중산행이란 35단락의 시문 서문에 ‘중산은 상주에 딸린 현인데 현사람 황오가 노래짓노라 라는 서문을 시작으로, 13단락의 오점에는 기와, 도기와 향아리 독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호주의 도자기 굴은 고래등보다 높다 라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상주지역의 도자생산량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황오, 『녹차집』).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지금까지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상주지역은 12개의 면, 27개의 리로 분포되어 있다. II. 본론 1장 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이 분포지역에서 77개소의 요지가 발견되는데 그중 백자요지가 45개소로 가장 많다 [그림1], [그림2]. 백자요지 뿐만 아니라 분청사기 등 많은 수의 요지가 주로 서산일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필자는 이곳 서산이 현재의 상주의 서산일 것이라는 추측 하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1] 상주지역의 조선시대 백자와 분청사기 가마터 분포도<sup>1)</sup>



춘당대 시험 보는 선비에게 주려 공물로 올라온 제주감귤을 종들을 재촉해 불러 식당에 차리라고 하였네.

한결같이 굴을 서산의 백자 사발에 담아 내오는데 모두 앞 다투어 수라상 7분쯤 높이를 넘즈시 보네.(丁若鏞, 『茶山詩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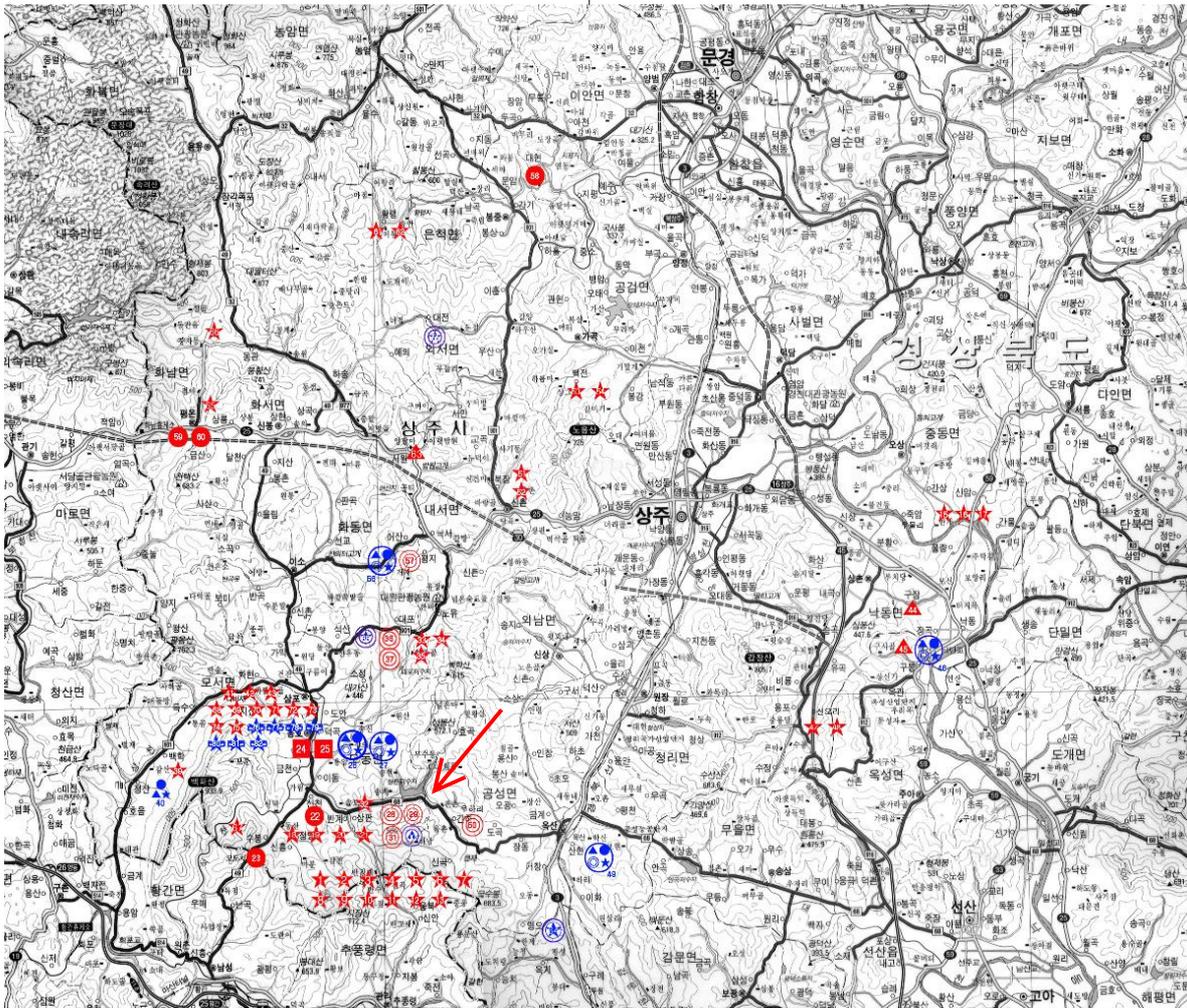
라고 하였다. 이는 다산이 선조의 고사를 시로 쓴 내용으로 정조의 일화가 담겨 있다.

조선 선조때부터 춘당대에서 황감제를 시행하였다. 감귤이 익을 때 짬 제주도에서는 특산품으로 황감을 진상했다. 이때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임시로 치르는 과거시험이 황감제이다. 황감제에 응시하는 유생들에게 제주도에서 진상한 황감을 하사 하고 과거를 보이는데 그 일화를 다산이 시로 쓴 것이다.

다산은 「선조기사」에서 여러 가지의 고사를 시로 지었다. 그 중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과거 황감제가 있었다는 내용과 제주의 특산품 황감이 임금께 바쳐졌다는 것과 상주 서산의 백자가 수라상에 진상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황감도 귀한 과일이지만, 서산의 백자가 얼마나 우수하고 진귀한 그릇인가를 사실대로 기록한 내용이므로 다산의 이 시는 조선후기 상주지역 백자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했나를 고증

1) 2005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청자의 색과 形’ 한국·중국 청자 명품 비교전시 중의 전국의 백자, 분청사기 요지만을 표시한 안내서를 참고하였다.

[그림 2] 상주 시, 군, 면, 리 요지 분포지도<sup>2)</sup>



하는데 뒷받침이 될 만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조선후기 상주 백자의 도자사적 의의를 바로 지적해 준다.

## 2.2. 조선후기 백자를 통한 유가의 수신

### 2.2.1. 유가의 수신 도구

그릇은 특히 백자가 단순한 일상생활의 용품으로 사용된 것만이 아니고 유가에서는 선비정신을 기리는 덕목으로 삼았음을 볼 수 있다. 『논어』 「옹야편」에 공자가 말했다. “모가 나아할 술그릇이 모가 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모난 술그릇이라 하겠는가?” (『논어』 「옹야」)라고 한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라고 하는 그릇은 모난 그릇을 말한다. 만약 모난 그릇이 본래의 형태와 제도를 잃었다면 그것은 모난 그릇이 이미 아닌 것이다. 즉, 이 내용은 공자가 그릇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물건을 들어 논하였지만 단지 하나의 예이고,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본래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임금이면서 임금이 지녀야 할 도를 잃으면 그것은 임금이 되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의 직분을 잃으면 그것은 자리만 채우는 신하가 된다는 가르침을 공자는 ‘고’라는 그릇을 통해 남겼다. 이익의 『성호사설』 「만물문」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2) 상주지역의 요지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재구성한 것이다.

“丁公言(丁謂)과 蔡君謨(蔡襄)가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낸 茶餅을 만들어 조정에 바치자, 드디어 세상의 풍속이 같게 되었다. 蘇東坡의 시에 “무이산 계곡 옆 좁쌀처럼 생긴 싹, 앞의 丁謂와 뒤의 蔡襄이 몇 상자씩 따갔더니”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차례에 다식을 쓰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름만 남아 있고 실물은 바뀌었다. 인가에서는 흑 밤을 갈아 대신 사용하는 집도 있는데 물고기·새·꽃·나뭇잎의 모양을 만든다. 이는 龍團이 와전된 것이다. 모난 그릇이 모나지 않게 만들어지는 일(甌之不甌)에 무슨 물건인들 그렇지 않겠는가?”(李漢, 『星湖雜說』)

라고 하였으니 이익이 세상의 풍속이 변질 되는 것을 송나라 때 정위와 채양이 예전의 법식에 맞지 않는 다병을 만들어 올린 예를 들면서 ‘고’라고 하는 모난 그릇이 모가 나지 않으면 ‘고’가 아닌 것처럼 사람이 오류를 모르고 오류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훈계를 아우르기를 그릇을 통하여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는 그릇에 명문을 새겨 수신(修身)의 기물로 삼았던 선현들의 경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옹양호(1724-1802)의 「호로다주명」으로 호리병박 모양의 차따르게에 쓴 명문이다.

“호리병박 모양 茶注 하나와 호리병박 모양 사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강희 연간에 인모한 것이다. 다주와 사발이 모두 호로(호리병박)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다주는 색이 누렇고 네모졌다. 사발 모퉁이에 ‘하늘로부터 거둬 복을 받는다’라는 4글자가 새겨져 있다. 다주에는 뚜껑이 덮혀 있는데, 뚜껑에는 작은 매듭에 달려 있다. 사발은 색이 누렇고 둥글며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다. 다주와 사발 모두 자작나무 상에 얹혀놓았고, 상은 받침대에 얹혀놓았다. 받침대 역시 자작나무로 조각했는데, 제작 기법이 기묘했다.

호로의 배엔 술을 담고  
호로의 입으론 차를 따르네.  
너의 자질은 본디 둥글고  
너의 목은 본디 긴데  
길어야 할 목이 어찌하여 짧고  
둥글어야 할 모양이 어찌하여 모가 났나?  
어찌 너를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으랴?  
재주 있는 장인이 솜씨를 부려놓은 것이리라  
새겨 넣지 않아도 문채가 이루어져 있고  
제자리에 그쳐서 옮겨가지 않는 군자의 떳떳함 있구나.  
저 호로병에 담긴 맑은 이슬을 마시며  
나의 마음속을 맑히리라.”(洪良浩, 『耳溪集』)

라고 하였다. 옹양호가 차주에 “자천신복” “하늘로부터 거둬 복을 받으리라”는 명문을 보고 쓴 글이다. 호로다기에 술을 담아 마시기도 차를 담아 따르기도

하는데 둥글어야 하는 모양은 모가 나있고, 목이 길어야 하는 모양은 목이 오히려 짧으니 장인이 멋을 부린 것이라 하며 장인의 솜씨가 도리어 본성을 해쳤지만 차주는 자신의 성품을 바로 알고 제자리에 그쳐서 옮겨가지 않는 군자의 떳떳함이 있다고 말하며 깊이 차주를 아끼는 마음을 술회하고 있다.

사서의 하나인 『대학』은 대인지학의 학습단계와 목표를 삼강령 팔조목으로 말하였는데 군자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대학』의 삼강령 마지막 단계인 “지어지선”(『대학』)이다. 홍양호는 장인이 제대로 만들어 놓진 않았어도 수양이 잘 된 군자가 지선의 자리에 그쳐서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덕을 완성한 경지를 갖는 것처럼 차주의 그릇이 제자리에 그쳐서 옮겨가지 않는 군자의 “지어지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다기의 품성을 찬미하였다. 또한 저 호로병에 담긴 차를 마시며 나의 마음속을 맑히리라 하였으니 차주가 단순한 그릇의 기물을 넘어선 군자가 수양의 덕을 기르는 하나의 덕목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조보감』 정조조 7에서 도자기에 쓰여진 명문을 찾아본다.

“성균관에 御題를 내려 유생들을 시험보이고, 수석한 사람을 불러 法醞을 내렸다. 세종조에 鍾鏞을 하사하고 효종조에 銀盃를 하사했던 고사를 따라서 특별히 늘 사용하던 은배를 거두어 하사하였는데, 술잔의 배 부분에는 ‘我有嘉賓(『詩經』 「鹿鳴篇」)이라고 篆書로 썼으니, 대개 鹿鳴篇에서 빈객에게 연향을 베풀었던 예로써 선비를 예우한 것이었다. 이어 경연에 참여한 신하와 응제한 유생들에게 명하여 詩歌를 지어 그 일을 노래하게 하고, 직접 銘과 詩를 짓고 책머리에 서문을 실었으며, 이름을 『太學銀盃詩集』이라고 하였다.”(申叔舟, 『國朝寶鑑』)

신숙주가 국조보감에서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이고 수석한 사람들에게 어주를 내린 것을 기록하였다. 세종은 그림 그려진 술잔을 하사하였고 효종은 은배를 하사한 것을 따라 정조도 은배를 하사하였다. 그런데 은배 술잔의 배부분에 『시경』 「녹명편」의 시구인 ‘아유가빈’을 전서로 썼으니 빈객을 선비로 지극히 예우하는 뜻을 술잔의 기물에 쓴 명문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윤휴(1617-1680)의 『백호전서』에서 자기를 즐겨 가까이 한 내용이다.

“공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빈객을 좋아하였는데, 빈객이 오면 채소와 과일 두어 가지만을 차려다가 磁器 술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銀盃는 들여가도 끝내 즐겨 쓰지 않았다.”(尹鑣, 『白湖全書』)

라고 하였으니 윤희는 술을 좋아하고 빈객을 좋아하여 손님이 찾아오면 술대접하기를 즐겼는데 은배는 술자리에 들어가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술잔에 술을 따라 마셨으니 그것은 자기의 결백한 성품 '지어지선'하는 당당한 성품을 흠모하고 그러한 모습을 수신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심수경(1516-1599)의 『유한잡록』에서 선비가 자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후생을 경계한 내용이다.

“나의 당질 沈日昇이 司饗院 참봉으로서 沙器所 監造官이 되어 나에게 말하기를, ‘술에 대한 시를 지어 보내 주시면 잔대에 그 시를 써서 구워 만들겠다.’ 하기에 내가 5언 절구를 지었으니,

‘주덕송(劉伶, 『酒德頌』)은 참으로 율을 만하며  
얼큰히 취하면 화평스럽다  
술잔에 내 훈계를 부치노니  
오직 원하건데 술은 많이 들지 마소’

하였더니, 심일승이 그 시를 새겨 새 술잔을 구워 보내왔다. 대개 이 시는 나의자식이나 조카를 훈계하고자 한 것이지, 타인에게야 어찌 준수하기를 바라리오마는, 술의 재앙은 비참하니,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라면 어찌 유념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沈守慶, 『遺閑雜錄』)

심수경의 조카 심일승이 사옹원 참봉으로서 사기소의 감조관이 되어 심수경에게 요청하길 술에 대한 시를 지어 주면 잔대에다 시를 써서 구워 만들겠다고 하였다. 진나라때 죽림칠현 중의 한사람이었던 유령이 술의 공덕을 찬미하여 「주덕송」을 지었다. 심수경은 당질 심일승에게 취기에 유령의 주덕송은 율을만 하고 또 취하면 기분도 좋아지지만 술은 많이 마시지 말라는 훈계의 시를 지어 주었다.

심수경은 당질이 그 시를 술잔에 새겨 구워서 보내왔으며 나의 자식이나 조카를 훈계하고자 한 뜻으로 술의 재앙은 비참하니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기 술잔은 단순한 그릇으로서가 아니고 그릇에 좋은 글귀를 새겨 넣어 경계함을 삼고자 하여 선비의 수신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한 내용이 조선 후기 도자의 사적 위상 중 일면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이덕무(1741-1793)의 「견한」이다.

“벼슬길에 떠도는 차취 浮萍 같으니  
두류산에서 어느덧 두 여름 맞았네  
공부하느라 돌보기 눈에 걸치고  
청아한 마음으로 白磁器 술 서로 권하네  
푸른 대 성기니 연기로 엷어매고  
붉은 장미 시드니 비가 깨워주누나  
역승이여 술 사이에서 시 읊기를 계속하고  
종일토록 그늘진 정자에서 거니노라  
남쪽 하늘 세 차례나 갔다 왔으니

어디엔들 망향의 대 없을쏜가  
서둘러 전원을 둘러보니 죽순이 바야흐로  
솟아나고  
늦게 아문으로 돌아오니 대화 이미 졌구나  
편의를 독차지했으니 원래 복된 땅이지만  
번뇌 못 없애면 시름이 곧 따르리  
그러나 한 물건만은 용납 못하니  
우레소리 같은 모기 떼를 쳐부수누나”  
(李德懋, 『靑莊館全書』)

이덕무가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쓴 시이다. “벼슬길의 부평초 같은 신세에 두류산에서 여름을 맞이하여 공부하며 청아한 마음으로 백자기에 술을 권한다”라고 하였으니 선비가 존심양성의 공부를 하는 여가에 즐기는 한 잔 술에 백자기가 따랐던 것이다. 다음은 신위(1769-1845)의 「대화·삼십축·기」이다.

“창문 환히 밝자 아침 까마귀 시끄러운데  
오사모 쓰고서 홀로 차를 따르네.  
간밤에 수선화가 피었나 놀라보니  
고풍스런 질그릇에 향기 짙은 새싹 돌아났네.”  
(申緯, 『警修堂全藁』)

신위가 아침을 노래한 시이다. 신위는 수선화를 사랑하여 늘 가까이 하였나 보다 아침이 되어 창문이 밝아지고 새소리 시끄러운데 홀로 앉아 차를 마시자니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번져와 혹시 간밤에 수선화가 피었나 놀라 살펴보니 고풍스러운 질그릇에서 새싹이 돌아났다고 하였다. 선비의 취미에 함께한 흥취에 엿볼 수 있는 옛스런 자기의 모습이다.

다음은 정약용(1762-1836)의 「산거잡흥 기이」에서 다산이 백자 주발을 애호한 시이다.

“꽃술이 해를 받아 아침 단장 선명하고  
열은 녹색 질푸른 색 색색이 다 고운데  
순주산 백자 주발을 손수 들고서  
시내 건너 호포천을 한가로이 걷는다네.”  
(丁若鏞, 『茶山詩文集』)

이 시는 다산 정약용이 산에 은거하면서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 들꽃 가득한 산을 거닐자니 산 빛이 너무나 곱다고 술회한다. 손에는 지금의 순창인 순주에서 만든 백자완을 들고 한가로이 찻물로 제일가는 호포천가를 거니는 듯이 걷고 있다고 술회하였다.

이상과 같이 백자는 유가에서 중정한 선비의 정신을 기르는데 중요한 애완물이 되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내용은 조선후기 백자에 대한 왕과 선비들의 백자관이기 때문에 상주백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면이라 하겠다.

## 2.2.2. 다구에 쓰인 백자

조선후기 백자가 갖는 위상 중 하나는 유가나 불가의 다인들 곁에 있었던 다구라고 할 수 있다. 백자

가 다구에 쓰여진 자료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박윤목(1771-1849)이 칠송정 차 모임을 부러워하며 쓴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바위 기슭 그늘진 산의 풍광 속에서  
솔그늘 가에 옥구슬 소리 부딪쳐 나네  
백학관의 시는 예나 지금이나 같고  
냉천정의 물맛도 예전과 변함이 없네.  
천고의 옛 골짜기에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무더위 그윽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더위를 지나네  
그림 찻잔 두고 바둑판 그려 저절로 한가함 얻으니  
그 누가 지상의 늙은 신선 있음을 알리오?”  
(朴允默, 『存齋集』)

박윤목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서 일찍이 20세에 내각에서 벼슬을 할 때에 詩文에 뛰어나고 성품도 근신하여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조선 후기의 여항시사인 송석원시사가 해체된 뒤 서원시사를 결성하여 많은 시인들과 시작 활동을 하였다. 위의 시는 칠송정의 여러 시인들이 차를 끓이고 바둑을 두며 여름 더위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며 쓴 시로 조선후기 제현들의 피서에 차를 함께했고 ‘화완’이라는 자기가 함께 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홍현주(1793~1865)가 선달 눈 녹인 물로 차를 끓이며 쓴 시에도 조선후기 선비의 다도에 쓰인 다구에서 화자를 볼 수 있다.

“겨울 12월 계미 날임에  
남창 아래에서 한낮이 되도록 잠을 잤네.  
구름에 대나무 문 가려 두드리는 사람 없고  
눈이 매화나무 집을 둘러 속세와는 끊어졌네.  
흰 김으로 봉한 옛 상자를 가져다가  
보이차와 월단차를 꺼내보네  
편지를 펴보니 천리 밖 그대 얼굴 완연하고  
연남 땅 친구의 마음이 두루 담겨 있네.  
모란 구슬 둥근 구슬 곳곳마다 떨어지고  
마른 소나무 늙은 해나무 마구 소리를 내네.  
오지화로 獸炭에 불이 불기를 기다리는데  
돌냄비의 끓는 물거품 솔바람 처럼 들리네.  
어린 종에게 맡기지 않고 몸소 차 달이느라  
머리 위의 오사모는 반이나 기울었네.  
꽃무늬 자완에 담으니 아름다운 색 드러나고  
한 잔 마시니 갑자기 답답한 가슴 트이네  
桶井 尾泉 물맛은 오히려 두 번째 가니  
맑고 빼어난 맛 갈증 풀기에 알맞네.  
병 많은 이에겐 오직 차 마시는 일 필요하니  
내년을 위하여 남겨 보관해 두고자 하네.  
(洪顯周, 『海居齋詩鈔』)

홍현주는 선달 12월에 한낮이 되도록 늦잠을 자고 나서 찾아오는 이 없는 대나무 사립문에 눈발에 피어난 매화와 벗하여 보이차와 월단차를 다린다. 멀리서 보내온 벗을 그리며 오지화로에 불을 지피고 손

수 차를 다리느라 오사모가 반쯤 기울어 졌다. 다도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색감이다. 좋은 향기 좋은 맛 좋은 빛깔을 꼽는다. 차를 다려 화자에 담으니 아름다운 찻색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다완은 조선후기 차를 즐기는 선비며 다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학연(1783-1859)의 「전차」라는 작품 속에 나타난 다구이다.

“아침이 되도록 숙취 남아 한낮에 졸음 와서  
석탄불 조금 지피니 찻물 거품 기이하게 이네.  
물맛은 혜산의 석간수에 부끄럽다 할 만하나  
목영은 월주요 자기잔에 양보하지 않는다네  
사마상여의 갈증을 적셔주기엔 충분하지만  
동박만청 허기를 그제하기는 어렵도다.  
나물 먹는 마른 창자에 어찌 차를 마시랴만  
한가로운 가운데 담박한 생애를 지어보네.”  
(丁學淵, 『三倉館集』)

위 시를 보면 정학연의 나물밥 먹는 담박한 생애에 차를 즐기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찻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가난한 삶이라 찻잔으로 목영을 쓰고 있지만 이 목영이 월주자에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차라리 물맛은 혜산의 좋은 물맛에 뒤져도 찻잔은 월주 자기에 양보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 시구 속에는 당시 차를 애호하는 다인에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월주 자기 찻잔이 매우 높은 품질로 평가 된다는 뜻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은 효명세자(1809- 1830)가 다종 다호를 노래한 시이다.

“수정처럼 깨끗하고 옥처럼 차가운 맑은 잔으로  
살짝 떠서 차를 마시매 담박한 향이 감도네.  
비로소 크고 작은 모든 것 잘 만든 것임을 알겠으니  
많은 물건 중 그 누가 아끼던 옛 다기런가?”(孝明世子, 『敬軒集』)

효명세자는 학문을 좋아하여 젊은 나이에 『경헌집』 『학석집』 등의 문집을 남길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지만 불행히 단명 하였다. 차를 좋아하며 찻잔을 애호하여 시로 찻잔을 찬미하였다. 수정처럼 깨끗하고 옥처럼 맑은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니 은은한 향이 감돈다고 하였다. 찻잔이 크고 작은 것은 모두 다 제각각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다 잘 만든 다종 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많고 많은 물건 중에 이 고품스런 찻잔은 옛날에는 그 누가 사랑하였던가? 하였으니 찻잔으로 사용된 자기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은 효명세자의 「차호」를 노래한 작품 이다.

“옥을 깎고 금을 새겨 정교히 만들었나니

모나고 둥근 다호 모양 제 각각 영롱하네.  
 텅 빈 속 가련히 여기며 능히 물건을 아껴서  
 맑은 물과 황아차를 가득 담고 있네.”

(孝明世子, 『敬軒集』)

라고 하여 다관을 노래하였다. 옥을 깎고 금을 새겨 모나게도 만들고 둥글게도 만든 다호가 제 각각 잘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텅 빈 다호에 맑은 물과 황아차를 담은 다고 하였으니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그릇이라 비유 할 수 있겠다. 다호처럼 사람도 정신과 마음속에 맑은 물 맑은 차만 담아내길 바라는 수양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金允植(1835~1922)의 문집 『雲養集』에서 차주발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비록 南畝의 물과 용단 승설차가 있다 해도, 제 그릇에 담지 않으면 西施가 더러운 것을 뒤집어쓴 경우와 같다.”(金允植, 『雲養集』)

다도에 있어 아무리 좋은 물과 좋은 차가 갖추어 졌다 해도 제 용도에 맞는 그릇을 쓰지 않으면 서시라는 미인이 더러운 물건을 뒤집어 쓴 경우와 같다고 하였으니 공자는 매사를 의와 예에 부합되게 실천한 뜻이 다도에 있어서 다구를 격에 맞게 갖추는 일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 III. 결 론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상주 백자의 문헌적 일고찰을 하였다. 먼저 서론에서 필자가 상주지역을 집중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산의 백자가 얼마나 우수하고 진귀한 그릇인가를 사실대로 기록한 내용의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상주지역 백자의 위상과 도자사적 의의 및 조선후기 백자를 통한 유가의 수신을 고찰할 것을 밝혀두었다. 이러한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색의 사적 위상에서는 조선후기에 발달한 백자의 백색은 예와 덕의 상징성인 백색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료를 고찰하였다.

둘째, 제기로 쓰인 백자에서는 백자가 우리나라 중국 등에서 제기 및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 쓰였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어기의 배경과 상주 서산의 백자에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조선후기 백자가 어기로 소용되고 진상품으로 올려진 내용을 고찰하였고, 특히 진상된 백자가 상주 서산의 백자임을 밝혔다.

넷째, 백자를 통한 유가 수신의 위상에서 조선후기 선비들이 수양하고 학문하는데 여러 가지 방편을 두었다. 그 중 하나로 백자의 결백한 정신을 흠모한 점

또는 백자에 경서에서 수신이 될 만한 내용을 명문으로 써서 중정한 선비 정신을 기르는 애원물이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고증하였다.

다섯째, 다구에 쓰인 백자는 조선후기 선비들이 차를 애호하였다는 사실도 밝힐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조선후기 백자의 사적 위상을 고문헌의 자료와 다양한 문집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백자가 지닌 정신적 세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상주 서산의 백자가 어기의 진상품이었음을 문헌을 통하여 밝혀냄에 따라 상주 백자가 한국의 도자사적 위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참고문헌

- 『국조보감』
- 『논어』
- 『녹차집』
- 『다산시문집』
- 『동차록』
- 『명심보감』
- 『맹자』
- 『성호사설』
- 『시경』
- 『이계집 권 십칠』
- 『임원경제지 면학지』
- 강경숙(1986). 분청사기 연구. 일지사
- 김종태(2004).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중품 도자소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제17권 58호, 307~318.
- 김종태(2006).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상주백자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제19권 67호, 17~30.
- 김종태(2008). 조선시대 상주지역 도자의 역사적 위치와 의의. ‘한국공예논총’, 제11집 4권, 49~64.
- 이종민(2007). 고려 분묘 출토 도자 연구. ‘호서사학’, 46호, 31.
- 장동철(2008). 상주 대포리요지 도자소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57호, 5~29.
- 전승찬(1996). 15세기 자기소 고찰(I).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1호, 85~102.

